

이적에 대표팀 발탁까지…KIA 정현창, 변화무쌍 일주일

지난달 NC와 깜짝 트레이드…이범호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라 결정”
“트레이드·대표팀 소식 갑자기 들어 실감 안나…성장 시즌 보내겠다”

놀라운 한 주를 보낸 '호랑이 신임생' 정현창(사 진)이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7월 28일 NC 다이노스와 3대 3 '깜짝'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외야수 최원준·이우성, 내야수 홍중표를 보낸 KIA는 우완 투수 김시훈·한재승 그리고 내야수 정현창을 받았다.
KIA가 불펜 고민 해결을 위해 낙점한 김시훈과 한재승은 상대로도 만났던 만큼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 하지만 정현창은 올 시즌 프로 생활을 시작한 '고졸 루키'인 만큼 낯선 이름이었다.
우투좌타인 정현창은 부산공고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루키다. 올 시즌 1군 4경기에 나와 6타석을 소화했고, 아직 프로 데뷔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다.
KIA는 정현창의 '미래'를 보고 트레이드 카드로 선택했다.
이범호 감독도 "퓨처스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았던 친구다. 미래를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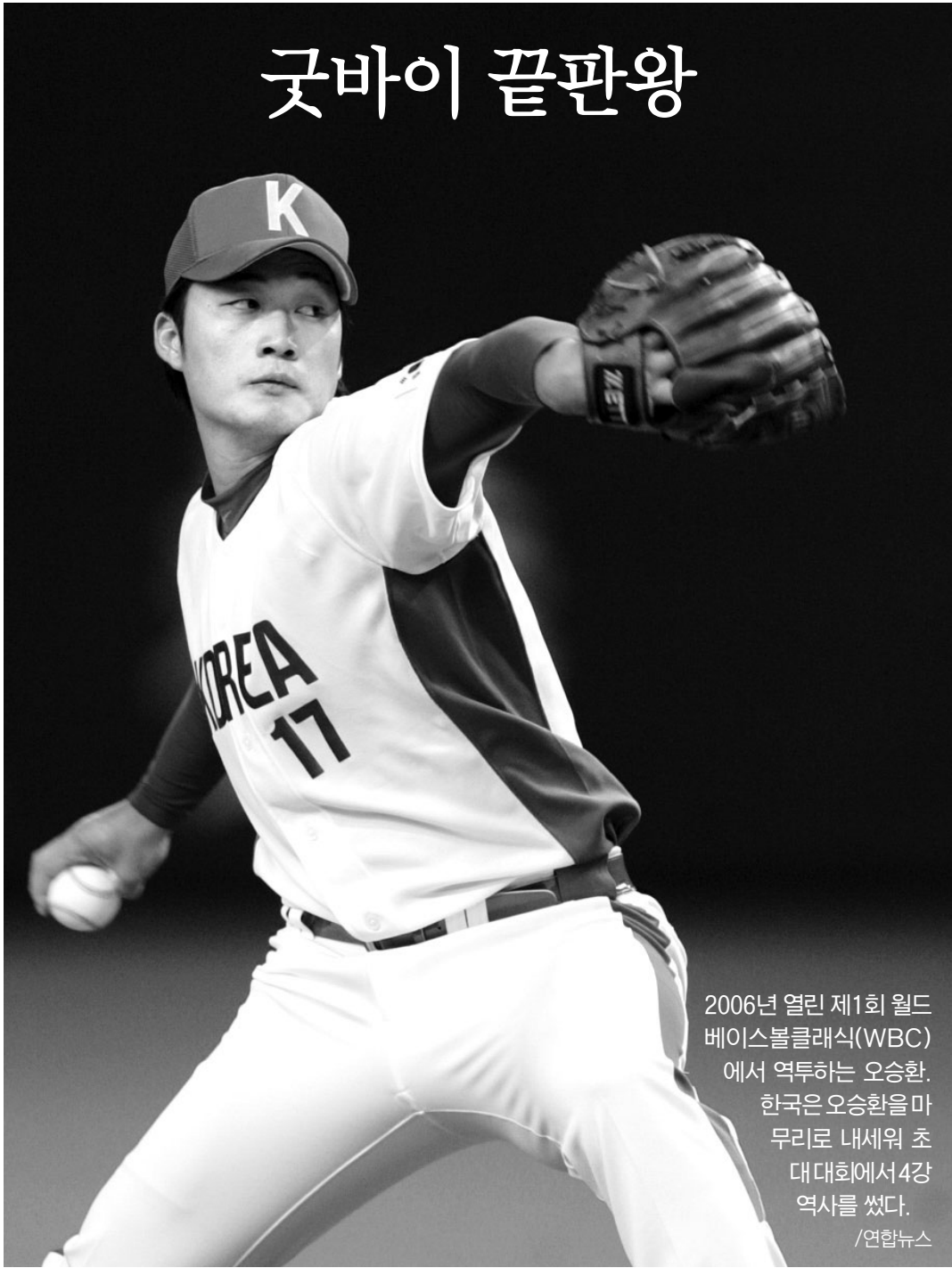
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정현창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이제 막 프로에 뛰어들어 적응의 시간을 보냈던 정현창에게는 말 그대로 '깜짝 트레이드'였다.
그는 "휴식일이라서 부산 본가에 있다가 트레이드 전화를 받았다. 트레이드 됐다고 가족에게 알리고 나서 기사가 났다"며 트레이드 당시를 이야기했다.
김해부곡초-부산토현중-부산공고를 거친 그는 창원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던 만큼 광주는 낯선 도시다. 여기에 KIA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선수도 없는 만큼 걱정을 하면서 광주로 왔다. 갑작스럽게 KIA로 온 그는 지난주 1군 선수단과 훈련도 하면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다.
정현창은 "KIA에 아는 친구가 없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1군에서 연습했는데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 배울 것도 많으니가 동기부여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정현창은 트레이드 이후 또 다른 '깜짝 소식'을 들었다. 오는 9월 중국 푸젠성에서 열리는 제31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대표로 선발됐다는 소식이였다.
정현창은 "처음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소식도 늦게 들었다. 처음 대표로 뛰는 것인데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트레이드와 대표팀 소식을 갑자기 들으니가 실감이 안 났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변화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정현창은 빨리 적응을 끝내고, 성장의 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다.
"강한 어깨가 자신있다"고 말한 정현창은 "받은 평균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타격에서는 출루를 많이 해서 투수를 흔드는 유형이다. 지금 당장 팀에서 기대하기 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성장을 해야 하니까 열심히 배우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또 "같이 트레이드로 온 형들이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좋고, 기회가 오면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새 팀에 왔으니가 모든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라운드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뛰어나는 선수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삼성 오승환, 은퇴 결정…2006년 WBC 4강 멤버 모두 퇴장

오승환(43·삼성 라이온즈)이 은퇴를 결심하면서 2006년 3월 한국 야구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멤버들이 전원 퇴장했다.
삼성 구단은 6일 "오승환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오승환은 한국 KBO리그에서 정규시즌 737경기, 일본에서 127경기,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232경기에 등판했다.
한미일 통산 1096경기에 등판한 오승환은 세이브 549개(KBO리그 427개, 일본 80개, MLB 42개)를 수확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모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은 진기록도 세웠다.
3개 리그에서 뛰며 기록과 추억을 쌓았지만, 오승환은 '인생의 변곡점이 된 대회'로 제1회 WBC를 꼽았다.
2005년 삼성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오승환은 그해 10승 1패, 16세이브, 11홀드, 평균자책점 1.18을 올리며 신인왕을 수상했고 2006년 3월에 열린 WBC 대표팀에 합류했다.
1회 WBC 대표팀은 한국 최초 빅리거 박찬호, 한국 야구의 아이콘 이승엽, 이종범, 구대성, 현역 빅리거 김병현, 서재응, KBO리그를 대표하던 우완 삼총사 손민한, 박명환, 배영수 등 초조화 멤버로 꾸려졌다.
당시 대표팀 막내는 1984년생 전병두였다.
오승환은 1982년생 친구 김태균과 함께 두 번째로 어린 선수였지만 대회를 치를수록 존재감을 발휘했다. 1라운드와 2라운드 첫 경기까지 박찬호를 마무리 투수로 썼던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박찬호를 선발 투수로 돌리기로 결정하면서 2라운드 2차전 미국과의 경기부터 오승환을 마무리로 기용했다.
오승환의 공을 지켜 본 미국 대표팀 포수 마이클 버렛은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오승환은 마치 시속 110마일(약 177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것 같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오승환은 훗날 "고교 때 팔꿈치 수술을 받은 나는 MLB 진출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학 때까지는 KBO리그에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다"며 "1회 WBC에 출전해 빅리거에서 된 선배들과 함께 뛰고, 현역 빅리거를 상대하면서 '혹시 나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KBO리그 최고 마무리로 부상한 오승환은 2014



2006년 열린 제1회 월드 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역투하는 오승환. 한국은 오승환을 마무리로 내세워 초대대회에서 4강 역사를 썼다. /연합뉴스

년과 2015년 한신 타이거스에서 '일본 최고 마무리' 자리를 꿰찼고, 2016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하며 빅리거의 꿈도 이뤘다.
2009년, 2013년 WBC에도 삼성 소속으로 출전한 오승환은 2017년 자신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WBC 출전은 '현역 빅리거' 신분으로 했다.
오승환은 철저한 몸 관리로 구속을 유지하고 구종도 추가하며 마흔이 넘어서도 마운드를 지켰다.
2006년 WBC 멤버 중 가장 오래 그라운드를 누빈 선수가 오승환이었다.
/연합뉴스

세한대, 대한유도연맹전 단체전 금

세한대 유도팀이 하계 대학유도연맹전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세한대는 지난 6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끝난 2025 하계 전국대학유도연맹전 체급별 단체전 결승에서 동의대를 4-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4강에서 국제대를 4-1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세한대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앞선 대회의 아쉬움을 달랬다.
세한대는 지난 4월 춘계 대학연맹전과 7월 청풍기 전국대회에서 아쉽게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치면서 3위를 기록했었다.
팀의 단체전 우승을 이끈 김민성은 대회 최우

수선수로도 선정됐다.
김민성은 남자 개인전 100kg이상급에서 용인대 장유민과 맞붙어 은메달도 추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21개 대학부 선수들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을 다퉈왔다.
전국대학동아리유도대회를 겸해 대회가 진행되면서 동호인 선수들도 단체전에서 승부를 펼쳤다.
세한대 유도팀 노박환 지도자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지난 춘계대회의 아쉬움을 날려 기쁘다. 70일 남은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꼭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작품을 담다

조 선 아

Choo Sun A Solo Exhibition

7월 11일 - 8월 10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조선아 개인전 : 시간을 담다

일시 : 2025-07-11(금)~2025-08-10(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08.22

10:00 19:30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